

실직 및 구직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 생애주기관점을 중심으로

양 성 은(인하대학교 교수)

실직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 활발히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약 10년이 지나 글로벌경제위기로 다시 제기된 구직의 어려움은 실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학문적 재조명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구직을 원하는 청년층과 중장년층 실직자들은 연령에 따라 1997년 외환위기를 다르게 경험했기 때문에 일종의 코호트효과(cohort effect, 동시대출생집단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를 생애주기의 어떤 단계에서 경험했는가에 따라 2008년 금융위기에 다르게 대처하며, 이들이 지닌 직업관, 실직에 대한 해석, 구직을 위한 방식 등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코호트효과를 고려하여 생애주기단계가 다른 실직자들의 실직경험 및 구직활동을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청년실직자 준거를 금융위기 영향으로 대학 졸업 후 구직하지 못한 29세 이하의 실직자로 규정하고, 중장년실직자는 40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규정하였다. 연구참여자 준거에 따라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을 실시하였으며, 성별은 남성으로 제한하였다. 최종 연구참여자는 청년실직자 9명과 중장년실직자 11명이다. 자료수집을 위해 현상학적 개별심층면접(phenomenological individual in-depth interview)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중심주제 분석법(theme analysis)에 의해 분석되었다.

생애주기에 따른 실직과 구직경험에 대해 고찰한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거시적 차원의 경제위기에 대한 경험이 청년층과 중장년층 실직자들에게 달리 나타났다. 1997년 외환위기를 부모의 보호 아래 겪은 청년층은 2008년 금융위기 역시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거시경제적 위기와 개인의 구직을 직접 연계시키지 않았다. 반면, 중장년층 실직자들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극복이 안 되는 진행과정”으로 인식하며, 거시체계의 위기가 구직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지적했다. 둘째, 실직의 원인에 관해서도 청년층은 자신의 부족한 “스펙 쌓기”가 실직의 원인이라는 내적귀인을 바탕으로, 구직을 “혼자 해결해야 하는 일”로 인식했다. 반면, 중장년층은 실직을 외적귀인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개인적 노력으로 타파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분노와 무력감을 표현했다. 셋째, 구직의 목적도 청년층은 개인주의에 입각한 반면 중장년층은 가족의 생계부양을 중요시하며 가족주의를 들어냈다. 넷째, 청년층은 현재 구하는 직장을 미래의 “더 나은 이직”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한편, 중장년층은 안정적인 “한 곳에 정착”하고자 하는 희망을 토로했다. 넷째,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공통적으로 구직과정에서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경험했다. 끝으로,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 국가의 실업정책이 갖는 실효성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했다. 본 연구는 코호트효과에 주목하면서, 연령별로 실직과 구직에 대한 경험의 차이를 탐색하였다. 이를 근거로 구직자들을 위한 코호트별 맞춤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취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